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201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11월 23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연구원 규정 변경(안)과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상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사회는 지난 3월 개원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사회로서, 연구원은 설립 이후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건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단계에 있고,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성과들을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다수 발표하여 학술적 신뢰 확보 및 기계설비건설 분야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이사장은 또한 “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건의 R&D 과제를 수주하여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인정받는 밑거름을 마련했으며 자립형 연구기관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연구 원장은 2015년 업무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산업정책연구실에서는 기계설비건설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설비기술연구실에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에너지 공급기술과 에너지절감 등의 그린기술을 집중 연구개발하여 우리 연구원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11월 12일 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11월 12일 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대한설비공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각종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기계설비관련 법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대한설비공학회 박종일 회장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주요 관련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기본법 △국가계약법, 관련 친환경 기준인 △녹색건축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등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연구진들은 연구과제의 후속 과제로 도출된 6개 연구과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후속 연구과제

1	기계설비건설업 분리발주 활성화
2	저가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개선
3	기계설비건설업 주계약자 공동도급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계설비연계
5	녹색건축물 조성법의 기계설비강화
6	기술용역업 발주방식과 용역비개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11월 6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3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11월 6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연구과제 최종보고 및 내년 연구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연구원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를 심의하고 6개의 2016년도 기본과제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연구원에서는 기본과제 6개와 국책과제 3개 등 2016년도에 총 9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된다. 국책과제는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연구 중인 2개 과제와 하반기에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개 과제이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계설비건설업 산업동향 분석 △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 △기계설비건설업체 부도예측모형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 △플랜트 현장 외

국인력 고용 개선 연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대용량 지열 설비 이용을 위한 지중열교환기 용량 설계 틀 개발 △기계설비 배관 및 장비 단열 기준 연구 △녹색기술 기준에 근거한 연구 등 2015년도에 수행 중인 9개 연구과제를 최종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화택 위원장은 “적정건수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길 바란다”면서 “국책과제 등의 외부과제 수탁을 통

해 연구원의 자립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일 위원(협회 정책본부장)은 의무적 원도급발주 근거법령 개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수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동철 위원(조합 기획조정실장)은 주요보증의 원가분석은 회계법인 및 신용평가회사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2016년도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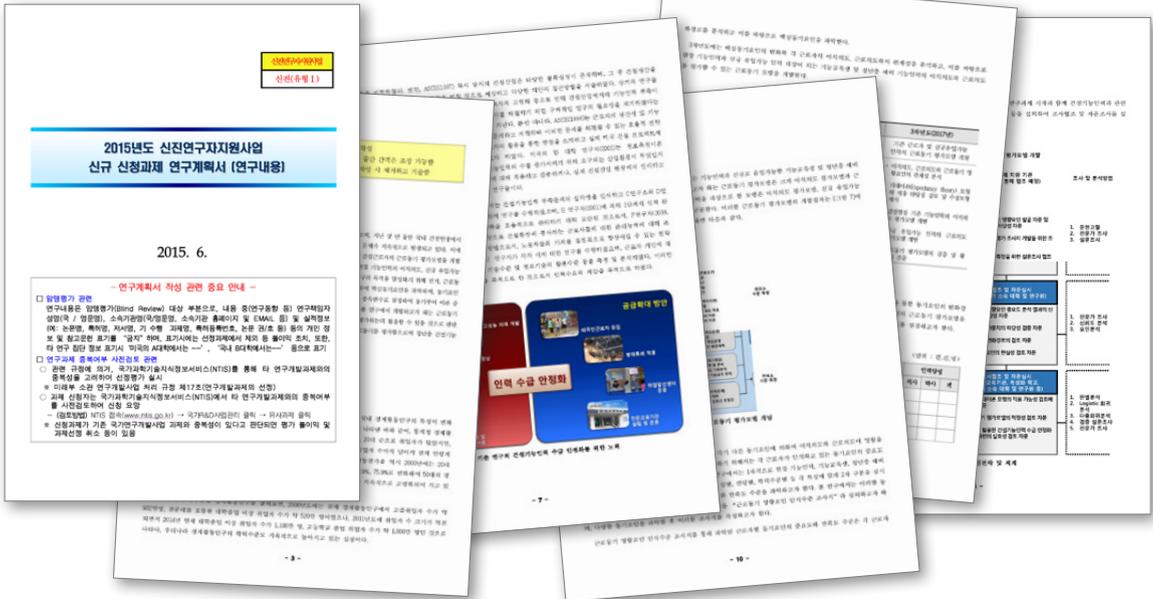
기본과제

- 기계설비건설업 산업동향 분석
- 기계설비 배관의 단열기준에 관한 연구
- 기계설비건설공사의 의무적 원도급(분리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근거법령 개발
- 건설공사 수행 시 4대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연구
- 부실채권 매각 방안 및 추심·구상권 강화 방안 연구
- 기계설비업체의 부도예측모형 연구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책과제

-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1세부 - 성능 및 비용 효율을 고려한 설비 개선·리모델링 기술개발)
- 건축물의 성능위주 설계기준 및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1-2세부 : 배연창 및 배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 Expectancy theory 모형을 활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동기 평가모델 개발

2015년 하반기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 오치돈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5년도 하반기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됐다.

이번 신규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지난 10월 연구과제로 제안한 “Expectancy theory 모

형을 활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동기 평가모델 개발”이다. 이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동기부여 이론을 활용하여 근로동기 평가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총 3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 과제개요

사업명	2015년도 하반기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과제명	Expectancy theory 모형을 활용한 건설근로자 근로동기 평가모델 개발
연구기간	2015.11.01. ~ 2018.10.31. (3년)